

高水敷地와 둔치

이삼희 (쓰쿠바대학 공학연구과 박사과정)

‘한강 둔치에서 돛자리 깔고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여의도 둔치에서 한마당 축제가……’ 등의 인터넷상의 신문기사가 근래에 자주 눈에 띈다. “아니! 둔치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한강시민공원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고수부지를 둔치라 일컫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에서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문용어집의 정의에 충실해야 할 다름아닌 일부 하천 및 수자원 전문가들마저 일반시민들과 같이 고수부지를 둔치라하는가 하면 기술보고서까지 내놓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둔치는 결코 고수부지가 아니다. 둔치라는 말뜻에 대해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著, 어문각)에서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국어대사전(이희승편저, 민중서림)에서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물가의 언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어대사전에서 둔치를 ‘물가의 언덕’이라고도 설명한데 대해서는 하도 미지형에 대한 정말 예리한 관찰에 의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복단면하도형태가 형성되는 중하류의 일부구간에서 저수로 하상재료가운데 홍수시 부유상태로 된 유사가 저수로변 가까이 고수부지화된 곳에 소류상태로 바뀌면서 약간 불룩하게 퇴적하는 하천횡단방향의 土砂分級現象마저 지적했으니 말이다. 결국, 둔치는 하천수로변이나 호숫가에서 흐름과 파랑(물결)의 영향을 직접받아 형성되는 수로변인 물가뿐만 아니라 바다의 파도에 의해 형성된 해변가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굳이 둔치의 공학적 의미를 하천에만 국한

하여 더듬어 본다면 복단면하도이든 단단면하도이든 저수위와 풍수위사이에 위치하는 位況에 노출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직적이다. 특히, 자연복단면 하도에서는 저수로 만배수위까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강의 경우 정비구간에서 둔치의 모습은 저수로 호안부(저수로 경사면)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정의하의 둔치는 하도계획상에서는 물론 90년대 후반에 들어 도입되기 시작한 하천에서의 자연공생개념이 담긴 이른바 River Quality를 추구하는 하천(생태)환경공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천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특정시민들이 고수부지를 얼핏보아 일본식 용어다하여 거부감을 나타내어 고수부지 뜻으로 둔치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둔치에 부합하는 의미로 고수부지가 아닌 별도로 水際(미즈가와), 岸(기시), 渚(나기사), 磯(이소) 등의 용어를 실제 사용하고 있다. 磯(이소)는 하천변보다 해변가의 둔치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 둔치는 일반적으로 水際라고 사용하지만 하천의 경우는 河岸, 호수의 경우는 湖岸따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말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던 고수부지의 단어 그자체로는 사실 일본에서조차 그런 의미는 없다. 추측컨대 이는 어디까지나 80년대 한강종합개발 당시, 일본에서 하도계획시 사용하는 高水敷(코우스이지끼)를 잘못 번역하여 사용함에 따라 비롯되었을 것이다. 高水敷의 敷는 일본어 체제인 음독이 아닌 훈독으로써 단지계획상 개발의 대상으

로 쓰여지는 敷地의 뜻이 아닌 ... (을) 깔다/펼치다, ... (가) 널리 깔리다/퍼지다/덮이다는 뜻이다. 즉, 高水敷는 저수로 만배유량정도 이상의 수위인 고수(註: 홍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출이 발생했을 때 양적인 의미를 지니고, 고수는 그 홍수때의 위치 즉, 수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가 깔려 번져나가는 평면적인 터(장소)라는 뜻으로 치수목적의 하천정비에 적용된다. 저수와 홍수때와의 유량차 정도를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우리나라나 일본하천들과는 달리 구미하천에서는 비교적 작아 이런 하도형태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高水敷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데 수완을 발휘하는 일본전문가들이 일본하천특성에 어울리게 만들어낸 용어이다. 물론 구미하천에서 사용하는 제내지 범람까지 포함하는 Floodplain(註: 홍수터라기 보다 범람원으로 번역함이 타당할 것임)과 高水敷와는 다소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도내의 High Berm이 고수부지 용어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규모면과 토지이용도측면에서 Berm은 완전히 고수부지의 뜻을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용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나라마다 하천에서 고유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 하천사방시설기준(註: 우리나라의 하천시설기준에 해당함)에서 高水敷에 대한 애매모호하고 획일적인 규정에 다소 하천공학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최근 해당 하천의 하도특성과 지역주민의 여론(註: 1997년에 대폭 개정된 하천법에서 새로이 명문화함)을 반영하여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형 하천정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하천 및 수자원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수부지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면적인 고수부지의 뜻으로 수직적인 둔치라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적절치 않다. 어차피 대부분 전문가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는 고수부

지라는 용어가 전문용어집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속해 사용하든가 아니면 홍수터(註: 제내지를 제외한 제외지 고수부지를 의미할 것임)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순수고유어가 좋다면 방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에 즐겨 썼던 물터(고수부지는 높은 물터, 중수부지는 보통 물터, 저수로는 낮은 물터) 등으로 하는 것이 둔치보다 오히려 공학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용어라 생각한다. 둔치는 어디까지나 전술한 바와 같은 둔치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천공학전용용어로 채택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하천 및 수자원 관련 전문용어들은 어디까지나 수자원학회 산하에 전문학술용어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수자원학회의 수문학용어집에서 조차 貯溜를 貯溜로 하는 등 잘못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고, 나아가 외래어화되어 가는 용어들도 일반시민들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 우리나라 말뜻을 찾아 두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최근 미시적 하천계획을 모색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하천환경관련 용어들도 검토해 대폭적으로 삼입할 일이다.

하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리적, 지형적 현상에 있어, 우리나라 하천특성에 맞는 적절한 우리나라 말뜻을 찾거나 만들어 내는데 우리 하천 및 수자원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노력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과 타분야 전문가들은 여과없이 고수부지를 둔치로 하는 것과 같이 하천 및 수자원관련 용어를 편의적으로 곡해하여 쓸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들과 같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